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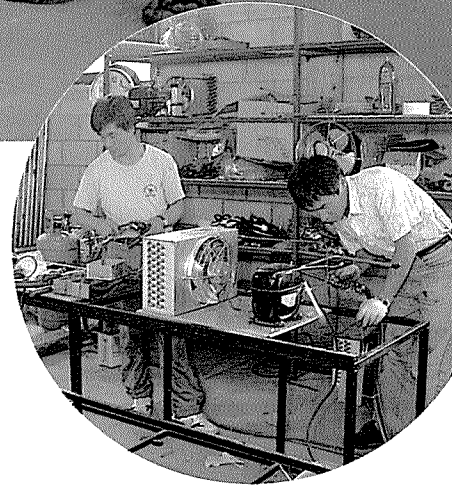
## 업체탐방

지난 90년 서울 포이동에서 대만제기 수입회사로 출범한 엔디산업은 지난해 12월 법인으로 새출발하면서 철저한 생산관리 시스템과 규격화된 공정관리를 이룩했다. 권혁길사장과 엔디가족들은 올가을 430여평의 부지위에 '내공장 마련'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인 쇼케이스 생산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인데 이들의 한결같은 꿈은 쇼케이스전문 업체로서의 '제일주의'다.



### 규격화된 생산공정, 전 직원의 책임주의 실현

# 쇼케이스 제작전문업체 엔디산업



서울에서 차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달리면 녹음이 짙게 우거진 교외마을에 단층 슬라브를 올린 (주)엔디산업(대표 권혁길)을 만날 수 있다.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시골마을 광주읍 회덕리는 공해 심하고 복잡한 도심과는 사뭇 다르다. 엔디가 그 만큼이나 맑고 깨끗한 쇼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던가...

1990년, 서울 포이동 구룡사(九龍寺) 근처에서 제과관련기계 수입으로 첫발을 내디딘 '구룡상사'를 올 1월 (주)엔디산업으로 개칭. 모름지기 쇼케이스 제작 전문업체로 발판을 다지게 되었다.

#### 주문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작업지시서에 따라 철저히 관리

엔디산업의 생산공장은 크게 3팀으로 나뉘어진다. 쇼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각종 원자재들이 입고되면 우선 적정한 형태의 가공이 이루어진다. 형을 뜨는 관금, 정교하게 설계된 도면 크기대로 재단·절단·절곡을 거쳐 용접하고 특수코팅을 한다.

쇼케이스 제품의 수핵이라 할 수 있는 냉동전기탑이 있다. 쇼케이스의 냉장과 냉동을 일정하게 하고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냉동전기탑에서 이루어지면 코팅이 끝난 각 자재들과 함께 조립단계에 들어간다. 2조로 나뉜 조립팀에서 쇼케이스가 완성된다. 양쪽 벽면으로 전기와 같은 보조시스템이 조립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얼핏보기에 15명 가량의 직원이 동분서주 분주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우리 만치 질서정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서식화된 작업지시서 때문이다. 영업부를 통해 생산주문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생산이 한단계 한단계 넘어갈 때마다 모든 작업사항이 한장의 작업지시서에 기재된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태어나 죽는 날까지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을 갖는 것과도 같다. 단지 이름대신 고유번호를 갖는다는 것이 차이다. 제품생산이 끝나면 제작완료검수란에 이기수 공장장이 최종 판정을 내린다.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전면 재작업에 들어간다. 평소 직원들을 동생처럼 아끼는 이 공장장이지만 그 순간에는 엄격한 판정관이 된다. 그것은 10여년 쇼케이스 제작분야에서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길러온 이 공장

▲▲ 쇼케이스 제작 마무리단계인 조립2팀의 작업현장. 측면에 배열된 전기부문의 보조를 받아 조립이 완성되면 작업지휘자와 납품담당자가 최종 서명을 한 작업지시서가 붙여져 어머니 뱃속을 떠나는 아이처럼 공장을 빠져나간다.

▲ 쇼케이스 제작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냉동부분. 냉각제가 일정하게 흐르고 유지되도록 하는 냉판생산작업은 고도의 숙련공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히 철판이 잘라지고 형태대로 붙여지는 판금과 용접팀의 모습. 한치의 오차도 허락할 수 없다는 듯 부름 뜬 눈에 용의 정기가 느껴지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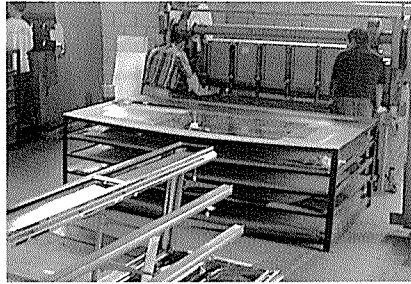
▼ 엔디산업 공장 외관. 한국총판 자격을 얻어 공급하는 이태리제 ISA아이스캔디용 냉동쇼케이스. 엔디를 위해 제 몫을 톡톡히 해 내는 ISA쇼케이스가 공장 밖에서 출고를 기다리며 서있지만, 새공장을 지으면 물류 창고를 마련해 제 공간을 할당받게 된다.

장 나름의 소신이 있기 때문이다.

권 사장의 좌정룡이 이 공장장이라면 우백호격인 김만영 영업이사가 영업부를 이끈다. 생산된 제품을 납품할 때 마찬가지로 작업지시서 맨 하단부 출고완료 검수란에 출고납품자의 서명이 기재된다. 주문받은 사항과 생산품이 동일한가, 생산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하자는 없는가, 고객에게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일 경우에만 서명을 한다. 이것이 엔디가 실현하는 책임주의의 골격이다.

### 약속은 철저히 지키고 인간적인 관계 중히 여겨

작업지시서 시스템에 따라 책임소재가 분명하면 생산품도 확실하다는 교훈을 오랜 직장생활에서 체험한 권 사장의 아이디어가 적중한 셈이다. 다행히 직원들은 권 사장의 생각을 잘 따라주었다. 권 사장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마치 내일·내집같은 생각으로 이적(移籍)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뭉쳐 열심히 일하기 때문인지,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엔디'라는 지붕 아래는 훈훈한 인간미가 흐르고 있었다.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이 재산이라는 권 사장의 좌우명이 엔디의 성공을 불러왔다. 권 사장이 인간처세에 능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한번 관계가 성립되면 단순히 아는 사람의 수준을 넘어 '관리' 차원으로 들어간다.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고장 없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까 고심하고, 쇼케이스안에 진열된 제품들이 어떤 각도에서 가장 잘 보일까 하는 것을 연구하듯 인간관계에서도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권 사장의 진심을 알아 준 많은 사람들이 권 사장의 재산이며 엔디의 든든한 후원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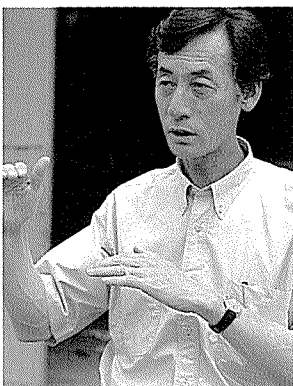
엔디는 성능이 우수한 쇼케이스를 생산해 약속일자에 정확히 맞추어 납품하는 것으로 보답한다.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납품일자는 천재 지변이 없는 한 밤을 새워서라도 꼭 지킨다는 것이 생산수칙 제1조다. 이렇듯 철저히 지키는 약속이 또 다른 수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인지 그래서 엔디산업의 쇼케이스 주문량의 대부분은 준양산업체에서 받은 것들이다. 개점일자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업체일수록 약속일자

개념이 분명한 협력업체와 거래하기를 원하며, 엔디는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해 공생공존하는 셈이다.

또한 엔디가 짧은 기간동안 제법 탄탄한 명성을 얻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철저한 애프터서비스 실시. 현재 전문 A/S차량 4대와 A/S 기술팀 7명이 하자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바다 건너 제주도도 멀다 않고 단숨에 달려간다.

### 더 나은 작업환경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

지금 엔디가족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현재 공장 옆에 430여명의 공장부지를 확보해 올 하반기에 새공장을 준공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4번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등 집 없는 설움을 겪었지만 이제 제집을 갖게 되었으니... 생산부문도 보강하고 직원용 식당·기숙사·샤워실 등 현재의 설비보다 훨씬 나은 환경으로 꾸밀 생각이다. 권 사장은 여기에 연구실을 마련, 쇼케이스 뿐만 아니라 제과관련기계 전반에 대한 생산도 조심스레 시도해 볼 계획이다. 구룡(九龍-Nine Dragon)의 첫글자를 따 엔디산업이라 이름 지은 것은 꿈틀대는 용의 열정과 기상을 닮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쇼케이스 한 대를 만드는 것이 마치 지식을 낳는 것 같다는 이기수 공장장의 섬세하고 자상한 손길, 엔디가 닮고 싶은 용솨음치는 용의 기상, 이 두가지가 합쳐지면 세상 무엇이랴도 두렵지 않고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엔디산업의 미래가 기대된다. <글/정보경> 



사장 권혁길

